

# 백종원X글로벌셰프5人 '한식대첩', 한식 세계화 큰그림



9월 15일 (토) 저녁 7시 40분 / live 첫방송

한식은 해외에서 걸음마 단계다. 관심은 있지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해외 유명 셰프들이 한식을 배우면서 경쟁을 펼치고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한식대첩' 고수와

## 글로벌 톱 셰프가 한식으로 대결...15일 첫 방송

김성주, 현돈 PD를 비롯해 비롯해 글로벌 톱 셰프 5인 데일 맥케이, 마셀로 발라딘, 파브리치오 페라리, 아말 산타나, 세르히오 메자가 참석했다.

### ◆ 해외 유명 셰프들을 한국으로 초대할 까닭

현돈 PD는 “‘음식당’을 보다가 한식을 배우기 위해 휴가 내서 가야겠다고 하는 외국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다가 기획하게 됐다”며 “글로벌 셰프들이 각 지역의 스승님과 짝이 돼 한식을 만들어간다. 각 나라에 가서 한식을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식대첩 고수의전’은 ‘한식대첩’ 시리즈의 스페셜로 한식을 제대로 배우러 온 다섯 명의 글로벌 톱 셰프 데일 맥케이(캐나다), 마셀로 발라딘(벨기에), 파브리치오 페라리(이탈리아), 아말 산타나(도미니카공화국), 세르히오 메자(멕시코)가 한식으로 대결을 펼친다.

모두 임지를 탄탄히 구축한 셰프들이기에 한국에 와서 한식을 배우고 대결을 펼칠지 의문이었지만 진정성은 통했다.

현돈 PD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몰랐고 머뭇거렸다. 처음엔 다

들 ‘섭의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 포기할까 하다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에 SNS를 찾고 이메일을 찾아서 편지를 보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 ◆ “돌아가 한식 전파하겠다”는 해외 유명 셰프 5인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 온 이유와 각오는 뭘까.

데일 맥케이는 “한국 음식에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동업자가 한국 음식을 해주곤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전통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서 널리 한국 음식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셀로 발라딘은 “유럽에서 먹은 것과 한국에서 먹은 한국 음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다양한 김치를 먹어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사찰 음식도 먹어 봤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중 최고 최상의 모습만 가져가서 벨기에 레스토랑에 잘 접목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현지 한식 콘테스트 밀라노에선 1위를 했다는 파브리치오 페라리는 “10년간 한국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고 난 뒤 한국 음식에 대해 궁

금증을 갖기 시작했다”며 “한식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제대로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말 산타나는 미국의 인기 리얼리티 요리 프로그램 ‘탑 셰프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인물. 그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한식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리턴 아메리카에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인 셰프로 ‘월드 베스트 셰프 50’에 선정된 세르히오 메자는 “남미에서 한식은 맵고 달고 빨갛고 삼겹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남미에 돌아가서 한국 음식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셰프들이 열정을 갖고 한식을 배우고 대결하는 과정은 시도만으로도 신선하고 흥미롭다.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한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심사위원으로 나선 백종원은 “이들의 한식 습득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 ◆ “밀리언마일러 됐다”, 남다른 포부의 백종원

백종원은 “유명한 셰프 분들이지만 한식에 있어서는 초보”라며 “처음 이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것이다. 제

대로 습득이 될까 싶었는데 첫 경연에서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분의 가게 중에 세 곳은 이미 가봤던 곳이고 방송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다섯 곳을 다녀갔다. 재미로 갔다”며 “이 분들을 초대하는데 이게 예외라고 생각했다. 또 이분들이 한식을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달여간 해외 셰프들의 식당을 가보느라 밀리언마일러(비행기 마일리지)가 됐다든 백종원의 포부는 남달랐다.

백종원은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에 관심은 많지만 식자재에 대해 맛보기의 느낌을 가지고 적용해보는 수준이다. 진정한 한식이 알려지려면 이 식재료가 어떤 맛,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이 프로그램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주는 “유명 셰프님들이라 잘 안 따라주진 않음 걱정했는데 너무 잘 해주신다. 국내 고수들에게 하더라도 더 잘 배우려고 하시더라. 1등 보다 오래 배우기 위해 남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한국 사람보다도 진정성이 더 느껴지지 않음에 감사”고 말했다.

‘한식대첩 고수의전’은 오는 15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된다.

## ‘곰돌이 푸’ ‘퍼스트맨’ ‘신동사2’, 가을바람 타고 릴레이 출격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외화 가 올 가을 극장가를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미녀와 야수’ ‘정글북’을 잇는 2018년 디즈니 라이브액션 흥행 주자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압도적인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퍼스트맨’, 해리포터 스펀크 시리즈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까지 다채로운 라인업 확장이 관객들을 설레게 한다.

가장 먼저 10월 3일 개봉하는 디즈니 라이브액션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는 어른이 된 로빈에게

유년 시절의 베스트 프렌드 곰돌이 푸와 친구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펼쳐지는 놀랍고도 따스한 감성충진 어드벤처.

10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아온 곰돌이 푸를 최초로 라이브액션으로 그린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는 ‘미녀와 야수’에 이어 흥행 2연타를 예고하는 명배우 이완 맥그리거가 어린 크리스토퍼 로빈을 연기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가을 감성을 두드리는 곰돌이 푸와 친구들이 색다른 귀여움과 철학

을 장착하고 올 가을 관객들의 공감성을 따뜻하게 충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른들이 더욱 공감하게 되는 명대사를 역시 놓칠 수 없는 감성충진 어드벤처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는 10월 3일 국내 개봉한다.

전세계 극찬의 중심에 있는 영화 ‘퍼스트맨’은 10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이후 개봉 예정이다. 영화 ‘퍼스트맨’은 이제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도전한 우주 비행사 닐(라이언 고슬링)을 통해 압도적인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작



폰이다.



특히 '위플래쉬' '라라랜드'를



연출한 데이비드 셔필드 감독의 경이로운 연출력은 물론 라이언 고슬링의 완벽한 연연으로 전세계 평단 및 유수의 영화제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화제작이다.

마지막 가을 외화 기대작은 11월 개봉 예정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로 마법 세계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서막을 여는 작품이다. ‘신비한 동물사전’에 이어 데이비드 에이즈가 연출, J.K. 롤링이 각본을 맡았고 세계적인 흥행을 이끈 전편의 주역들이 다시 등장한다. 전편의 런던과 달리 파리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며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같이 이름만으로도 풍성한 외화들이 올 가을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해 기대를 높이는 가운데, 가장 먼저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가 10월 3일 개봉한다.

## ‘풀 뜯어먹는 소리’ 가을편 17일 첫방



올 여름 신선한 재미와 힐링을 선사했던 tvN '풀 뜯어먹는 소리'

가 한태웅, 박나래, 황찬성, 송하윤, 이진호와 함께 돌아온다.

오는 9월 17일 오후 8시 10분 첫 방송하는 tvN ‘풀 뜯어먹는 소리 가을편(이하 ‘풀뜯소’)’은 출연진이 도시에서 벗어나 16세 중딩 농부 한태웅과 함께 생활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골 삶큐멘터리 프로그램 지난 여름편에서 농사 생각 뿐인 8년차 농부 한태웅과 함께 하는 출연진의 즐거운 시골살이기가 무궁해 웃음을 자아내며 ‘월요일 예능’으로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새롭게 찾아온 가을편에서는 시골살이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 대동’ 한태웅의 소원인 ‘농촌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과정’이 담겼다. 송하윤, 이진호를 비롯해 박나래와 황찬성이 합류, 태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농촌 지킴이 ‘농번즈’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박나래와 황찬성의 신bio 케미에 귀추가 주목된다.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이 순수소년 태웅을 만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또한 관전 포인트.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태웅이 ‘풀뜯소’에서 온 편지’를 보내와 웃음을

자아낸다. 여전히 구수한 말투로 인사를 건넨 태웅은 쫄쫄을 맞은 시골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을 소개한다. 우리끼리 하면 몸살밖에 더 나겠어유? 그냥 하면 되지 유라고 재치있게 말하며 ‘서울 양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수확의 계절 ‘가을편’ 인민극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즐거움이 펼쳐지며 지난 시즌과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출을 맡은 엄진석PD는 새 멤버들과 관련해 박나래는 8살 때까지 전남 무안의 할매집 댁에서 자란 인민극 시골에 비교적 익숙하다. 늘라운 본능과 적응력으 ‘농사대세’의 자리까지 꿰찰 정도, 반대

로 황찬성은 농사가 낯설어 쉽지가 않음을 하고 머리에 완벽 입력 후 움직이는 타임이라 색다른 조합이 즐거움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즌에서는 시골살이에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출연진이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태웅의 꿈을 돕는다. 농촌법에 도전하고 농촌의 활력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전통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며 가을 농촌의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그려질 것이라고 전해 방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

즐거움 시골살이 tvN ‘풀 뜯어먹는 소리 가을편’은 9월 17일 오후 8시 10분 첫 방송된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음력 8월 3일)



▶**서쪽**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중사하면 좋겠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조만간 전화위복할 듯. 1, 7, 12월 생 남의 힘이 필요할 때이니 서북쪽 사람에게 형편을 말하라. 북서쪽이 길하다.



▶**서쪽** 생각도 많고, 고집도 세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 관심을 가지라. 자기 몫을 다했을 때 1, 5, 8월생은 많은 것을 얻을 듯. 남쪽 사람이 이유 없이 신경질을 부린다. 지금은 변동할 때가 아니다.



▶**동쪽** 열 개 얻어 다섯 개는 남을 주고, 다섯 개는 자신이 가지면서 왜 공치사를 하는가. 남쪽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면 망신당할 수. 3, 9, 11월생의 마음 읽는 법을 배우라. 승자는 말이 없다. 0, 6, 8 성씨는 현 위치에서 한 번 더 전진하면 길하다.



▶**서쪽** 기차는 자기만 가는 길이 있다. 있던 곳에서 울기려 하지 말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이 좋을 듯. 송송이는 술을 먹는 법. 인내로써 자리를 지키라. 7, 8, 9월생은 상의는 흰색, 하의는 검은색을 착용할 것. 1, 4, 11 성씨는 주변을 정리하라.



▶**동쪽** 생각한 것과 달리 일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성급히 굴면 더 해롭다. 뱀, 원숭이, 닭에게 도움을 청하면 손조롭게 풀린다. 마음의 갈등을 풀라. 올상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 3, 9, 10월생은 건강에 주의하라.



▶**동쪽**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요령이 있다. 사업가는 구실에 오른다고 해도 움츠러들면 안 된다. 2, 7, 10월생이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빨간색은 용기와 힘을 주는 색이니 맘껏 활용하라. 7, 8, 9 성씨는 남쪽이 길하다.



▶**남쪽**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겸손한 자세로 사물을 보라. 인내가 필요할 때다. 곧 구름은 걷히고 태양이 빛난다. 7, 8, 0 성씨는 공짜 술이 생기는 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 2, 7, 11월생은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



▶**북쪽**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매 건에서 소식이 올 듯. 기분도 좋고, 일도 순조롭게 풀린다. 상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받을 수다. 잡념을 버리고, 하는 일도 중단하지 말라. 3, 8, 11월생 이제 빛이 보인다. 1, 4, 6 성씨는 갈등이 해소한다.



▶**동쪽** 주변 사람 말을 귀담아들라. 하려는 일에 도움이 될 듯. 그리하면 가뭄에 단비가 오듯 일이 풀린다. 다만 물길이 나가는 것은 많으나 들어오는 것은 없다. 4, 8, 10월생 자식 걱정으로 고민한다.



▶**북쪽** 오늘은 남에게 도움만 주지 내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나 봉사하는 즐거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함께 사는 사람이 4, 6, 12월생이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실속이 없어도 때가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겠다.



▶**동쪽**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뒷사람 조언에 용기백배로 행운이 있구나.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기본 좋은 날. 소망은 이뤄질 듯. 단, 3, 9, 11월생은 조심해야 한다. 1, 4, 6 성씨는 남, 동쪽에서 행운이 온다.



▶**북쪽** 벌여놓은 일은 오늘로 끝내라. 결심을 내일로 미루면 손해가 크다. 투기는 처음은 기본 좋겠으나 중반부터는 하락 일로를 걷는다. 말조심해야 할 하루다. 사람 속을 알아보는 독심술이 필요한 때다. 남쪽이 대길하다.